

<2022년 5월 4일 수요일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

[시대 성경]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이 되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며 목적을 이루시느니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택하여 쓰시느니라.

[마가복음 4장 14~20절]

14.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 말씀이 길 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6.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8.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 금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 자들’을 보고 알 수 있고,
저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며 함께하시는지
‘겪어 보고’ 알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드는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
〈그 마음〉을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택하십니다.
- 마가복음 4장 14~20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도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밭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시며,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에는 ‘말씀의 씨’를 뿌려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곡식이 말라 죽게 되고,

〈옥토밭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면
잘 결실하여 수백 배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택하십니다.

- 〈마음〉이 ‘사람의 최고 핵’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 〈마음〉은
 -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타고 나기도 하고,
 - 〈자신〉이 깎고 닦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밭〉도

〈옥토밭〉같이 본래부터 ‘땅의 본질’이 좋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돌밭〉이라도 돌을 빼내고 땅을 갈고 거름을 주어 만들면,
‘옥토밭’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 사람을 대해 보면 〈타고난 마음과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깎고 닦고 만든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말씀〉을 주어 실천하게 하심으로

〈그 마음〉을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 〈육신의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기’도 힘들지만,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만들기’가 정말 힘듭니다.

- 〈황금천국〉을 가려면,

〈거친 마음이나 악한 마음을 가진 자의 영〉으로는 못 갑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으로 선하게 만든 자의 영〉이라야,
‘황금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 하나님은 “〈사람〉은 ‘마음 값’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휴거되어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과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들〉이 되도록

〈자기 마음〉을 부지런히 만들어야 됩니다.

-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과

〈이 시대에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며,

저마다 꼭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며 ‘끝까지 못 하고 마는 자들’ 이 많습니다.
- <마음의 근성>을 고치면,
<나머지>는 ‘작은 것들’ 이라 만들기 쉽습니다.
- <월명동의 소나무들>도
서로 햇빛을 보려고 ‘키’ 만 하늘로 치솟아 자라나서

<나무의 상단부>를 모두 잘라서 ‘근본 문제’ 를 해결해 줬습니다.
‘나머지 가지들’ 은 조금씩만 손질하면 되니 쉬웠습니다.

이와 같이 <근본 문제인 근성>만 해결하면,
‘나머지 마음들’ 은 좋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 <나무의 상단부>를 모두 자르기 전에는
아무리 ‘옆 가지들’ 을 가지치기해 줘도 햇볕을 못 받으니,
계속 가지들이 죽어가고 ‘나무의 키’ 만 컸습니다.

고로 ‘일’ 이 너무 많아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상을 주셔서
3달 동안 <나무의 상단부>를 모두 자르고,
‘나머지 가지들’ 을 가지치기해서 해결했습니다.
- <소나무>는 ‘섭리사 모두’ 를 상징합니다.

고로 하나님은 이미 <1차>로 말씀을 주어

“<소나무>를 가지치기하듯,

저마다 <자기모순>을 가지치기해라.” 하셨습니다.

- 그리고 <하나님의 길 좌우의 소나무>에서

매일 ‘솔잎과 나무껍질들’ 이 떨어져서 청소거리가 많았을 때,

성령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며

<소나무 껍질>을 아예 벗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청소거리>가 줄어서

‘약간의 솔잎’ 을 쓸고 ‘물청소’ 만 하면 되니 쉬웠습니다.

- 이때 하나님은 <2차>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길 좌우의 소나무의 껍질>을 다 벗겨내서

<청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듯이,

저마다 <자기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라.

<자기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는 ‘작은 것들’ 이라 만들기 쉽다.” 하셨습니다.

- 사람마다 <근본 문제>가 다릅니다.

<자기 근본 문제>는 ‘자기’ 가 기도하면 압니다.

- <성경의 가인들>은 ‘자기 근본 문제’ 를 해결하지 못했고,

<성경의 아벨들>은 ‘자기 근본 문제’ 를 몸부림쳐 해결했습니다.

- <사울 왕>도

‘근본 문제인 근성’을 해결하지 못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음으로 죽었습니다.

<사울 왕의 근본 문제>는

‘시기 질투’, ‘분노’, ‘혈기’, ‘교만’ 등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그리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근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쪽 말씀해 주겠습니다.

- ▶ 첫 번째, <거짓말하는 근성>

- ▶ 두 번째, <말을 못 참고 안 할 말도 하는 근성>과
<남 말하기를 좋아하는 근성>

- ▶ 세 번째, <뾰에 잘 넘어가는 근성>

- ▶ 네 번째, <시기 질투하고 교만한 근성>

- ▶ 다섯 번째, <하나님과 성령님보다 자기를 중심하는 근성>

- ▶ 여섯 번째, <게으른 근성>

- ▶ 일곱 번째, <이성과 세상적인 근성을 못 버리는 육적 근성>
- ▶ 여덟 번째, <영과 육이 정결하지 못한 근성>
- ▶ 아홉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약속을 안 지키는 근성>
- ▶ 열 번째, <앞에서는 천사같이 대하고,
뒤에서는 뒷말하며 사탄같이 행하는 근성>
- ▶ 열한 번째, <일을 완전하게 안 해 버릇하는 근성>
- ▶ 열두 번째, <신앙생활을 보통으로 하고 사는 근성>
- ▶ 열세 번째, <말만 하고 행실은 안 하는 근성>
- ▶ 열네 번째, <자포자기하는 근성과 끝까지 안 하는 근성>
- ▶ 열다섯 번째,
<기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근성>
- ▶ 열여섯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는 근성>
- ▶ 열일곱 번째, <손버릇과 말버릇을 못 고치는 근성>과
<혈기와 분노의 근성>
- ▶ 열여덟 번째, <마음과 생각이 변화무쌍한 근성>

- ▶ 열아홉 번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근성〉
- ▶ 스무 번째, 〈자기 할 일인데도 핑계를 대고 미루는 근성〉
- ▶ 스물한 번째, 〈자기를 위한 일인데 오해하고 대하는 근성〉
- ▶ 스물두 번째,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해 놓고 책임 없이 사는 근성〉
- ▶ 스물세 번째,
〈잊으면 죽는다고 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는 근성〉
- ▶ 스물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근성〉
- ▶ 스물다섯 번째, 〈하나님보다 미디어를 좋아하며 사는 근성〉

- 〈이 근성들〉을 고치고 행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들〉이 됩니다.

그로 인해 〈자기 소원〉이 이뤄지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 년 역사의 뜻〉을 이루십니다.

-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가 쓰시는 자〉와
‘일체 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해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 세 번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심정〉을 알아 드리고,
같이 행하며 살아야 그 마음에 들어 좋아하십니다.

▶ 네 번째,

〈궁홀히 여길 자〉를 궁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좋아하십니다.

▶ 다섯 번째,

〈삼위를 절대 사랑하며 함께 사는 삶〉을
‘끝까지 사는 자의 마음’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 여섯 번째,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 사는 마음〉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 일곱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돕고 사랑하는지 진실로 알아 드리며
대하는 자의 마음〉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 여덟 번째,

자기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도하여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해 주셨듯이,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고 전도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이 살게 해 주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 아홉 번째,

〈약한 생명들을 잡아 주고 굳건하게 해 주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좋아하십니다.

▶ 열 번째,

자기를 위해, 섭리사를 위해,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범사에 매일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 열한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자의 마음〉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사는 삶을 잊지 않고 사는 자의 마음〉
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 열두 번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파도가 치나

삼위일체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마음〉과

〈누가 알아주나 몰라주나 충성으로 변하지 않고 사는 마음〉과

〈하나님만 보고 살며 입조심 말조심하고,

불평불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착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 이외에는 저마다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하나님의 근본 말씀〉을 들어야,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근본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택하시고 일도 맡기시듯이,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보고 대해야 ‘해’를 받지 않고,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대하면 실패합니다.

-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을 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왕상3:5-14)

그 후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고 대하여
‘백성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 항상 <사람의 중심이 되는 마음을 분별>하고,
<그 마음>을 보고 대해야 됩니다.
-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어 고치고 만들고 행하게 하시며
공활을 베풀어 주십니다.
- 모두 금주 말씀을 듣고
<자기 근본 문제>를 고치고 해결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마음들>을 배우고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